

북한 함경북도의 장마당 조사를 실시

◇장사 허가는 50 세 이상부터, 각종 단속에도 뇌물 바치면 그만

아시아프레스의 북한 내부 취재협력자가, 함경북도 셋별군의 중심부에서 시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장마당은 농촌지역에 인접해 있으며, 중국과도 비교적 가깝다. 이 조사는 4월 중순에 실시했고, 그 결과를 5월 1일 전화를 통해 알려왔다.

○상인만 500~600 여 명의 대규모...질서 유지 규찰대까지

취재협력자는 통화에서 "대체로 점심 12시부터 저녁 새까매질 때까지, 지금은 8시까지 합니다. (지정된 매대에) 앉아 있는 인원은 500여명, 자리가 없고 시장 주변에 앉아 판매하는 사람의 수는 150여명 정도입니다"라고 장마당의 규모를 전했다. 자리가 없는 사람은 주로 담배나 껌 등을 파는 노인들이라고 한다. 이 조사는 전국의 주민이 농촌지원에 동원되기 전에 실시했기 때문에, 운영시간도 길다. 농촌 동원의 집중기는, 운영시간이 몇 시간으로 제한된다.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나이제한이 있는데, 당국에서 허가한 기준은 50세부터다.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여성뿐이다. 장마당의 보안원이 매일 시장을 돌며 장사꾼의 직업과 나이를 물어보며 단속하지만, 적발되더라도 뇌물을 주면 된다고 한다. 50세 이하의 사람들은 통제를 피하기 위해, 국가 상업망(국영 유통기업소)에 돈을 내 적을 두고 장사를 한다. 이 경우 시장의 통제를 덜 받기 때문이다.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젊은 여성도 정해진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뇌물이 횡행하고 있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시장에는 보안원 외에도 5명의 '규찰대'가 있다. 이들의 주 임무는 시장 질서의 유지다. 시장 주변에다 지저분하게 물건을 늘어놓거나, 자전거를 주차장에 세우지 않거나 하는 행위를 통제한다.

농장원들도 장사를 할 수 있지만, 평일이 아닌 1일, 11일 등의 장날에만 허용되며, 품종 역시 남새와 집짐승을 비롯한 농산물과 축산물로 제한된다.

○비료, 휘발유 등 판매 금지 품목도 몰래 팔아

장마당에서는 판매 품목에도 제한이 있다. 비료나 휘발유, 디젤유 등은 장마당에서 팔지 못하게 돼 있다. 국가가 일원적으로 취급해, 유통이 통제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들도 장마당 주변 민가에서 몰래 판매된다. 만약 단속되더라도, 윗선의 간부들과 통하고 있는 사이기 때문에 뇌물을 주면 된다고 한다. 취재협력자는 "간부들이 오토바이를 타지 않습니까? 그 휘발유를 공짜로 주고 하니까 몰수되는 건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상품도 팔리고 있다고 한다. 취재협력자는 "(한국산)바지라든가, 잠바 이런 젊은 아이들이 입기 좋아하는 것들은 내놓고는 못 팔고, 개인집에서 팝니다. '중고집(중고상품을 파는 집)'이라고 부릅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년동맹 규찰대'의 단속이 너무나 심해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외국, 특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복장은 '자본주의 양식'으로, 여전히 단속의 대상인 것 같다.

\*청년동맹 : 북한 노동당의 지도를 받는 청년 단체로, '청년동맹 규찰대'는 청년들의 머리 매무새나 옷차림 단속이 주요 임무다.

#### ○중국돈 사용은 공공연한 비밀

장마당에서는 중국 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취재협력자는 말했다. 농산물은 가격이 낮아서 중국돈으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공업품이나 기성복 등은 가격이 비싸므로 중국돈을 쓴다는 것이다.

중국돈 사용을 단속하긴 하지만 눈에 띄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조사한 취재협력자는 말한다. "중국 원화가 경제활동의 중심이 돼 버렸기 때문에, 강하게 단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단속에 걸려도, 100 원 정도 쥐어주면 그냥 갑니다"라고 말했다.

장마당 매대의 자리세는 중국돈으로 1,000 원이다. 나이제한이 풀려서 매대에서 합법적으로 장사해도 되는 사람들은 시장관리소에 1,000 원을 내고 자리를 사거나 매대 상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산다고 한다.

이전에는 어느 장마당에서도 시장세는 매일 바치는 식의 제도였다. 이것이 매대를 산다 = 즉 장사할 권리를 매매하는 제도로 바뀌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이 지구 이외의 장마당에서도, 매대의 판매가 행해지고 있는지는

불명이다.

취재협력자의 조사에 따르면, 장마당의 쌀값은 1 키로 당 3,700 원이다. 하지만 강냉이는 950 원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옥수수 가격은, 보통 백미의 절반 정도라는 것이 지금까지 북한의 일반적인 시세였다. 왜 옥수수 가격이 크게 하락했는지는 불명이다.

국수는 1 키로 당 900 원, 콩은 3800 원이다. 공업품의 경우, 내복은 중국돈 50 원이고 겹에 입는 재킷은 중국돈 100 원이 넘는다. (5월 2일 기준 중국돈 100 원이 북한돈 11 만 500 원에 해당)